

새해 첫 국무회의

정해년 새해 첫 국무회의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돼지 저금통으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올해 황금돼지의 해여서 감회가 특별합니다. 올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성취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궁극적으로는 4천8백만 국민 모두가 돼지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합시다.

새 정부 부담없이 출범하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

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좀 어수선할 것입니다. 대개 보면 선거 있는 해가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데 아무래도 국정이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. 이번에는 마지막 날까지 국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서, 올해 선거에서 새로 당선되시는 대통령이 아무런 부담없이 새 정부를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국민들을 위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앞으로는 제가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것입니다. 이유는 국정 마무리와 평가작업을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스스로 국정을 평가한다는 것

은 조금 우습지만 객관적인 의미에서 평가라기보다도 참여정부 스스로 계획했던 일, 수행한 일, 앞으로 남은 일과 지금 시점에서 그 일이 가진 국가적 의미,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평가와 정리를 위해 국무회의 장을 이용해 여러분께 수시로 과제를 드리고 당부도 할 것입니다.

정부혁신 마무리 작업, 국무회의 통해 수시 점검 필요

그 동안 정부혁신을 열심히 해왔는데 국무위원들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 정부혁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한번 더 다잡아야 되는데, 따로 자꾸만 혁신 연수회를 여는 것이 부담도 있고, 또 수시로 국무회의 때 점검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, 국무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. 그 외에는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입니다.

이해찬 총리가 취임하고부터 일상적 국정운영과 결정된 집행, 정부 내 있어서 부처간 조정, 그리고 국민사이의 갈등 조정, 이 모든 일들을 총리에게 위임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. 물론 한 총리 오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점에 있어서도 대체로 이총리 계실 때도 잘하셨고 한 총리 오신 이후로 갈등과제는 제가 직접 할 때보다 좀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계속 맡길 것입니다. 그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해 가실 것이니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.

제가 해오던 주요 결정사항과 정부혁신은 그대로 하고, 평가·마무리 작업을 제가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것 외에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. 종전처럼 총리께서 국정조정해 주시고 또 국민간의 갈등과제도 계속 조정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십시오.